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경축 이동

2024. 9. 22 (나해) 제2332호

함께 걸어나는
하느님 백성



복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르 9,35ㄴ



십자가 목걸이

12,8×1,1×8cm

광주가톨릭박물관

입 당 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 1 독 서 지혜 3,1-9

제 2 독 서 로마 8,31ㄴ-39

화 답 송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 물 로 씨 뿌 리 던 사 람 들 환 호 하 며 거 두 리 - 라

복음환호송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 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이 시대의 순교자

흔히들 ‘순교’라는 말을 죽는다는 의미에 한정시켜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순교는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써 우리 신앙을 살리셨습니다. 용감하게 죽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살리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문제만큼이나 무엇을 살렸느냐 하는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피의 순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순교가 옛날 옛적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도 순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교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교회의 신앙을 살리셨듯이, 우리 역시 일상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세상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이 죽어갑니까? 자연이 죽어갑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무와 동물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양심도 죽어갑니다. 돈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니 좋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 우리 양심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혼도 죽어갑니다.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 속에서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 우리 영혼은 자꾸만 흐려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이 죽어갑니다. 이 ‘죽음의 문화’가 힘을 키워가는 현실 속에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저항하고 하느

님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려고 땀 흘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순교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살리기 위해 더 적게 소비하고 더 적게 버리는 마음,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 마음, 영혼을 가꾸기 위해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좀 부담이 되고 손해 보더라도, 더 큰 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둘 모여서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대축일인 오늘, 우리가 순교자들의 피를 이어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선조들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신앙을, 지금 우리는 생명을 선택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봅시다. 이 시대의 순교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일이고, 꺼져가는 신앙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으며 이 시대의 순교자는 그것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 기꺼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대의 순교자입니다.

성종명 빈첸시오 신부
광양 본당



네 가지 기둥

- 소통, 생태, 청소년, 가난한 이



2021년 5월 5일, ‘세상을 향한 전교’와 ‘교회 내의 쇄신’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 제1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이슈가 떠올랐다. 소중한 대화를 통해서 떠오른 이런 이슈들은 워낙



다양한 방면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를 종합하고 함께 모으는 작업이 중요했고, 당일 대화 중에 이들을 압축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시간상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압축 요약하는 작업은 당일 참석자들의 제안으로 다시 기획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기획위원회는 더욱 공정한 작업을 위해서 교구 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실시하였다. 이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하나하나 모두 소중하여서, 어떤 의견 제시와 어떤 결정의 과정도 허투루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획위원회는 현재 광주대교구의 전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네 가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즉, 소통, 청소년을 위한 교회, 생태환경을 위한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라는 네 가지 주제가 그것이다. 이 주제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깊은 것들이지만, 광주대교구의 하느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선정한 주제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고 소중한 것들이었다.

소통은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서

로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 마음과 입장을 알 수 없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오해와 불신만 쌓여갈 뿐이라는 것을 공감하였다.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제

단 안에서는 주교님과 사제들 사이에, 주임과 보좌 사이에, 선배 사제와 후배 사제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구와 본당 공동체 안에서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평신도들도 교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가감 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태환경은 현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화두이다. 기후 재앙으로 일컬어질 만큼 심각해진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새로운 기폭제가 되었고, 각 교구와 본당에서 크고 작은 실천들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 교회를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이 주제의 일환이다.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복음서의 바탕인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직접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사목국장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느님



찬미 예수님! 저는 장덕동 성당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는 김민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새사제입니다. 저의 신앙 여정은 큰 굴곡 없이 잔잔했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제 성소 여정은 처음에는 단순한 시작이었지만, 여러 순간들을 통해 정화되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계속 주님께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제를 처음으로 꿈꾸게 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제의를 입고 제단에서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그 모습에 반하여 '나도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흔들리는 때도 있었지만, 저는 부모님과 주위 신부님들의 도움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제의 멋있어 보이는 모습을 그렸던 저는 신학교 입학 후 금방 흔들리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저는 1학년을 보내며 신학교에 천사들이 아니라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환상에서 깬 저는 신학교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저는 학기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기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기가 끝났고 1학년 마지막 피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체조배 시간을 가졌습

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을 의무적으로 자리만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느님의 강렬한 현존을 느끼고 그 안에서 큰 위안과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태에 있든지, 내가 마음속 깊이 문

을 잠그고 숨었을 때도 예수님께서서는 그 먼 길을 찾아오시어 저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그저 조금만 움직여 문을 열어 드리면 되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서는 기쁘게 저를 맞아주시며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한 후, 저는 '나의 성소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깊게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체험으로 저를 불러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에 힘입어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요한 1서 3장 1절의 말씀을 서품 성구로 삼았습니다. 그 성구로 저의 성소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민성 요한마리아비안네
장덕동 본당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여러 장소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도 가시지만 종종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집에 가서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어느 때는 아픈 이를 방문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목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저자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은 바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 예수님과 삼 년을 함께 지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의 아주 작은 몸짓에서도 사물과 피조물, 돈과 나 자신과의 정확한 관계를 배우고 싶었다. 하느님 아버지와 맺는 관계, 현실과 맺는 관계를 배우고, 일하는 법, 먹는 법, 사랑하는 법, 웃는 법, 빵과 소금으로 삶을 제대로 베어 무는 법, 죽는 법 등 삶의 지혜를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었다.”

저자는 성경 본문의 여백에 숨어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집’에 대하여, 그 집에 거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황들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성경 속 메시지를 새롭게 묵상하고 깨우치도록 이끌어 줍니다. 소박한 갈릴래아 어촌마을에서, 회당 근처에 사는 이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집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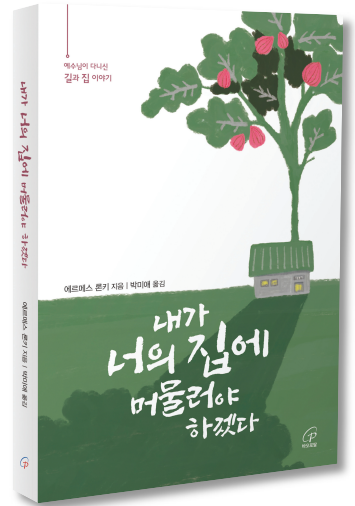
저자의 설명에 따라 성경 속 장소와 배경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다니신 ‘길’과 ‘집’에 동행하는 체험은 우리의 구체적이고 소소한 생활 중에 주님을 느끼고 대화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걷고 일하는 나날로 바

뀌줍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다르지 않은 일상이라 여기며 무료하게 보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할수록 삶의 이유는 분명해지고 그 목적을 향한 걸음에 자연스레 더 충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고 생각하는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마시고 장터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좋은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저자가 알려주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다 보니 예수님의 현존이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다는 걸 믿으니 같은 일을 해도 더 성실하게 섬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 묵상을 생활 속으로 이어주고 내 마음의 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좋은 책입니다.

김인순 가브리엘라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교구장 동정

- 9월 23-27일 이탈리아 크로토네-산타세베리나
대교구 방문
- 9월 28일 파리 한인성당 70주년 기념 음악회
- 9월 29일 파리 한인성당 70주년 기념 미사



사목국

제68차 선택 주말

기간 : 10.4(금) 19:00-6(주일) 17:30
대상 : 1985-98년생 미혼 남녀 접수순 30명
장소 : 교구청(쌍촌동) 3층
참가비 : 광주 시내 12만 원, 광주 시외 10만 원
교구지원본당 무료(본당신부 서명시)
계좌 : 농협 351-0683-2590-83
광주구천주교회
신청 : 9.22(주일)까지, 그룹웨어(김은희 수녀)
쪽지 / 메일로 PDF파일 송부 신청
입금하실 때 본당명, 개인이름 기재
문의 : 062) 380-2834

카나 혼인 강좌

일시 : 9.29(주일) 12:30-18:00
장소 : 교구청(쌍촌동) 103호 강의실
수강료 : 2인 4만 원
계좌 : 농협 601135-55-000431 광주구천주교회(카나혼인)
신청 : www.gjcatholic.or.kr → 하단 '카나혼인강좌' 클릭
문의 : 062) 380-2831

교구 위령기도 가창 대회

일시 : 11.30(토)
장소 : 교구청(쌍촌동)
방법 : 지구별 위령기도 가창 대회를
진행하여 최종 선발된 6팀이
교구 위령기도 가창대회 참여
시상 : 상장 및 상금
문의 : 062) 380-2833, 010-2385-2645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pc.com FM 99.9 MHz FM 99.5 MHz

YouTube 페이스북 광주가톨릭평화방송 OnAir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재방송) 16:50-17:00]

9.23(월)-25(수) 최종훈 신부(가톨릭 목포성지 담당) / 9.26(목)-28(토) 김정철 신부(자은 본당)

'향기로온 오후, 주님과 함께(종교 프로그램)' 수요일 코너

- '생선가게(생활성가선물가게)' [9.25(수) 14:05-14:55]



생활성가를 만들고 노래하는 성가 가수들을 초대해서 성가를 라이브로 들어보고 신앙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9.25(수)에는 찬양팀 '엘리스-심보연 엘리스벳, 윤동희 리나, 최은영 스텔라'가 출연해 9월 순교자성월을 묵상해보는 특별한 음악피정의 시간으로 마련합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 어플

'cpbc뽕-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향기로온 오후, 주님과 함께(14:00, 종교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17:00, 시사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월말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005(100원 유료), 뽕톡(무료)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방송 청취 소감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성바로 여행사(문의 : 062) 381-9004 /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튀르키예, 그리스(11일) 2025년 1.13(월)-23(목)

교구 선교(볼리비아) 후원 안내

천주교 광주대교구 선교 후원 계좌
광주은행 170-127-003379
(재)광주구천주교(선교)
문의 : 062) 380-282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사회복지법인 Caritas GWANGJU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2024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일시 : 9.28(토) 10:00-16:00
장소 : 살레시오고등학교 체육관
(광주 북구 모퉁대길 67, 일곡동)
문의 : 010-7492-0124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의 손길이 되어주세요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모아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사목을 지원하고 이주민,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후원 계좌 안내>

농협 605-01-353182
광주은행 019-107-310370

-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 062) 510-2881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gclei.kr 062) 380-2210~4

갤러리 ㅊ 380-2213 | 책더하기사랑도서관 380-2218

2024학년도 특강 안내

산티아고 스쿨

강사 : 박응렬('그래서, 산티아고' 저자)

- 평일 야간) 10.7, 14, 21, 28 / 월 19:00-21:00 / 4회 과정 / 수강료 4만 원
- 주말) 11월 2회 진행 예정 / 토 09:00-13:00 / 2회 과정 / 수강료 4만 원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심 있거나 순례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산티아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순례 준비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산티아고(박응렬/싱크스마트)'의 저자와 함께 하는 강좌입니다.

※ 수강료 결제방법 : 계좌이체, 카드결제(상생카드 사용가능),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 입금계좌 : 광주)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2024년 우리춤체조 수강생 종합발표회 "흥과 멋! 우리 춤으로 하나 되리!!"

- 일시 : 10.5(토) 17:00
- 장소 : 대건문화관

책더하기사랑작은도서관

가톨릭 도서와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가톨릭 전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 토 09:00-12:00 · 홈페이지 http://kccei.libp.net

기관·단체

예수회센터 가톨릭 동영상 강좌

일시 : 9월 개강
강좌 :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공간과 순례
성경대학 :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2
영성과 심리의 통합 두 번째 길 : 가치와 욕구
구약성경 아카데미 : 구약성경의 기초
마르코의 예수이야기
철학적 도발, 신학적 리액션 : 시몬 베유
방법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문의 : 02) 3276-7733, center.jesuits.kr

마리아사제운동 월레미사와 체나콜로기도

일시 : 9.23(월) 10:00-12:00
미사 :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소 : 염주동 성당
문의 : 062) 373-4799

살레시오가족 후원회 미사

일시 : 9.23(월) 10:30
장소 : 살레시오 신안동 수도원(전남대 정문)
문의 : 062) 512-0332

‘참 행복’을 구하는 ‘고요속의 현존’

일시 : 9.26(목) 19:30
장소 : 사랑의 씨앗수녀회 본원(본촌동)
대상 : 남·여 청년
문의 : 010-5528-3217

성령 은혜의 날(추계)

일시 : 9.28(토) 09:00-17:00
강사 : 조남구 마르코 신부(수원교구)
장소 : 교구청(쌍촌동) 성당
회비 : 5천 원(김밥 제공, 접수순 400명
(당일 접수 불가)
문의 : 성령채신봉사회 062) 382-6002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피정

기간 : 9.28(토) 14:00-29(주일) 14:00
참가비 : 2만 원(청소년 무료)
강사 : 김완식 요셉, 김태광 신부
진행 :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장소 : 초정성령회관
문의 : 043) 213-9103, 010-5482-6744

역사서 통독피정

기간 : 10.28(월) 10:00-30(수) 16:00
장소 : 매월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
문의 : 010-5604-6257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생태피정)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자연순례
기간 : 10.2(수)-4(금), 10.25(금)-27(주일),
11.1(금)-3(주일), 11.15(금)-17(주일)
대상 :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장소 : 성이시돌 피정의집(한통사)
문의 : 010-9670-9775, 010-2231-2074

씨튼 마음터 심리상담

내용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바우처)
영성, 우울, 불안, 대인관계, 가족, 커플상담
문의 : 010-6799-3732(유 무료 / 화정동)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 오르간, 작곡(CCM 작곡 포함), 합창지휘
혜택 :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 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 10.14(월)-25(금)
전형일 : 11.15(금) 최양업홀(서울시 중구 소재)
문의 : 02) 740-9704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상시 모집

대상 :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혜택 : 신실강의, 수료이벤트와 다양한 무료 콘텐츠 제공
문의 : 031) 360-7635, 010-7470-7966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교구 썰기도

일시 : 매주 월 09:30
장소 : 교구청(쌍촌동) 3층 경당
문의 : 총무 010-3162-0112

43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국가 : 캐나다, 필리핀
대상 : 청소년 캠프, 가족 캠프
성인 및 대학 어학연수
문의 : 국제교류팀 053) 593-1273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장소 : 도쿄, 북해도, 나가사키, 오사카, 아키타
순례비 : 3박 4일 120만 원(월 1회)
문의 : 010-3645-902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문의 : 02) 764-4741~3
www.holyfcac.or.kr

선교·수도회

글라렛선교수도회 광주후원회 월레미사

일시 : 9.23(월) 14:00
장소 : 남평 글라렛 영성의 집
내용 : 미사, 성사, 특강
문의 : 02) 743-7026, 010-7764-603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목포 : 9.24(화) 10:00 대성동 성당
순천 : 9.25(수) 10:00 저전동 성당
광주 : 9.27(금) 15:00 골롬반 선교회관

예수고난회 위령기도, 미사

일시 : 11.2(토) 10:30-13:00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5004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소 모임

기간 : 10.5(토) 14:00-6(주일) 13:00
장소 : 수도원 본원(경북 왜관)
문의 : 010-8353-2323(문자 문의)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 382-2214,
010-7159-9674

상설고해소

<< 교구청 성당

- 일시 : 화 13:30-15:00
금 18:30-20:00
- 장소 : 교구청 성당 교해실
- 성사집전
 - 화 : 교구 내 수도회 소속 신부님
 - 금 : 골롬반회 신부님
- 문의 : 062) 380-2210~5

<< 산정동 준대성전

- 일시 : 화, 수, 목, 금 14:00-16:00
토 10:00-12:00 / 14:00-16:00
(월요일 휴무)
- 장소 : 산정동 준대성전 교해실(2층)
- 문의 : 061) 274-1004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조 파트리치오 신부 선종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조 파트리치오(Patrick Joseph Muldoon) 신부님(향년 90세)께서 2024년 9월 6일 선종하셨습니다. 1958년 12월 21일 사제품을 받은 신부님은 1959년 10월 한국에 파견돼 광주대교구 함평 본당 보좌를 시작으로, 진도, 무안 본당 주임을 역임하셨으며, 도시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초반부터는 서울, 수원, 인천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셨습니다. 1998년부터 2014년 퇴임 때까지는 병원사목에 헌신하셨으며, 퇴임 후 한국 지부 본부에 머물며 면담 고해사제로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미사와 기도 중에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